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시부터	배포 2017.11.13(월)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02-2100-2657)	담 당 자	송 병 관 사무관 (02-2100-2643)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장 준 경(02-3145-7580)		민 경 찬 팀 장 (02-3145-7617) 석 준 원 팀 장 (02-3145-7616)

제 목 :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7.11.13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감원 심사가 종료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선위·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참고1 :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Q&A

참고2 :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재무현황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참고1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Q&A

1. 11.13일 금융위에 상정된 인가심사안은?

☐ 11.13일 금융위에 상정된 안건은

- ❶ 5개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과
- ❷ 1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임

2. 단기금융업 인가는 5개사가 신청했는데 왜 1개만 상정된 것인지?

☐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감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서만 중선위를 거쳐 금융위에 상정되었음

-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심사가 완료된 후 중선위·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것임

※ 참고사항

- 1개사(삼성) : 심사중단 [대주주(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중]
- 3개사 : 심사 진행 중

3. 왜 1개 증권사만 먼저 올렸나?

-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

4.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하는 것의 의미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은 단기금융업 인가와 별도로 법령상 지정요건*만 갖추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① 인수업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②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 ③ 인적
• 물적설비, ④ 이해상충 방지체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아울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참고2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재무현황

(’17.6말 기준, 억원)

구 분	미래에셋 대우	엔에이치 투자	한국투자	삼성증권	케이비증권
대표이사	최현만	김원규	유상호	윤용암	윤경은 전병조
임직원수	4,746명	2,847명	2,425명	2,208명	2,771명
설립일	1970.9.23.	1969.1.16.	1974.8.8.	1982.10.19.	1962.6.1.
자산총계	600,241	435,195	359,028	338,459	342,820
부채총계	528,742	388,270	315,578	296,227	300,658
자기자본 (자본금)	71,498 (34,020)	46,925 (15,313)	43,450 (1,757)	42,232 (4,584)	42,162 (14,931)
당기순이익 (손실)	1,965	2,051	2,652	1,192	1,124
순자본비율	2,627%	1,758%	1,869%	1,874%	1,496%